

여수·광양·순천

‘광양만권 통합’ 방법·대상 이견

“갈등 방지위해 단계 밟자” “하동·고흥도 포함을”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장들이 지난 5일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광양만권 통합에 전격 합의했으나 통합 방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2여수세계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최지 결정일인 11월27일 이전에 통합양해각서를 체결...

결기로 했으나 지자체별 경제력 차이 등으로 인한 통합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흡수 통합 등에 따른 지역 갈등 심화와 행정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단계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통합 범위에 있어서도 지역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성을 광양시장은 3개 시와 남해, 하동을 아우르는 안을 제시했고, 오현섭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은 현실가능성을 고려한 3개시 우선 통합을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에 따라 통합에 합의하더라도 전남도와 행정부, 국회 등에서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중앙정부나 정치권과의 교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주재 발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박사는 “올해 말까지 명칭 등을 확정하고 2009년까지 주민 투표를 완료한 뒤 2010년 통합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또 “3개 시를 먼저 통합한 뒤 남해와 하동, 고흥 등 주변 지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오는 10일 광양항 마린센터 2층에 문을 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의 교수진들이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전남 동부권 철도이용↓ 항공기↑

순천·광양 상의 2분기 조사

철도 8%줄고 항공 17% 늘어

전남 동부권의 철도 이용객은 줄어드는 반면 항공기 이용객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2·4분기 순천역과 여수역 등 동부권 24개 철도역을 통해 승차한 이용객은 33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여수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은 18만 904명으로 지

난해 동기 대비 17.55% 늘었고 전년 동기보다 15.12%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여수→서울이 16만 1천 81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4%, 전분기 대비 5.97% 각각 증가했고 여수→제주는 19만 823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2.35%, 전분기 대비 286.04%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남 동부지역 항공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Rows include various cities like 여수, 순천, 고흥, 광양, 남해, 하동, 무안, 담양, 장흥, 영광, 함평, 구례, 목성, 나주시, 화순, 담양, 영암, 장흥, 광산.

천연기념물 선암사 매화 ‘선암매’ 명명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선암사 매화가 ‘선암매’로 명명됐다. 순천시는 6일 선암사 매화 품종 명명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내년 중 특허청에 ‘선암매’ 품종 보호를 출원키로 했다.

품종보호란 신종종을 육성했을 경우 육종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특허제다.

고려시대 대각국사가 심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암사 매화는 수령이 600년 이상으로 높이 8.2m, 둘레 1.64m에 이르며 노거수 천연기념물 조사단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 매화로 입증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달 선암사 매화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 바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시 공무원 사회봉사단 발대

여수시 공무원들이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나선다. 여수시는 지난 3일 시청 회의실에서 80개 전 부서 1천5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109개 자체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사회봉사단은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해 연간 50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비롯해 산별 예방, 등산로 정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10일 광양마린센터서 개교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 광양에 들어선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교를 둔 Shipping & Transport College는 오는 10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한

국분교 개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란 이름으로 개교하게 되는 STC Korea의 본교인 STC는 1833년 개교

한 로테르담 시립해사학교와 1921년 설치된 Royal Education Fund for Maritime Sector, 세계 최초의 항만 노동자연수원인 로테르담 항만훈련원 등 6개 교육기관이 통합해 설립된 해운물류분야 전문 교육기관이다.

STC는 오만과 필리핀, 베트남,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에 분교 또는 합자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분교는 해외 교육법인 중 유일하게 석사학위과정 교육기관이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는 개교후 첫 단계과정 교육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졸업생 재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한국분교의 대학원 과정은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고소한 전어 먹으러 오세요”

광양 망덕포구 일원 14일부터 축제 열려

‘제 9회 광양 전어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일인 14일에는 삼진강을 배경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주제로 한밤의 음악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길놀이, 전어잡이 노래 시연, 경찰청 밴드 공연 등이 열리며, 16일에는 사물놀이공연 공연을 시작으로 합탈댄스, 전어 썰기대회, 전어요리 설명회 및 시식회 등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가훈 짜주기, 페이스 페인팅, 생생 포토 서비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연일하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는 개교후 첫 단계과정 교육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졸업생 재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한국분교의 대학원 과정은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과내영교육학). Includes text about teacher recruitment, exam prepa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aeyoung Education Cente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Yongbong (용봉) real estate agency,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 Tower (LC타워) real estate agency, highlighting prime location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lgajongin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cy, offering various services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yong (대인동상일부동산) real estate agency, specializing in property management and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ungongin (국민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c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real estate transac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st Century Real Estate (21세기부동산컨설팅) real estate agency, offer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solutions.

Large advertisement for wedding services (웨딩홀) in Gwangju, featuring details about venue packages, catering, and contact information.